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특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⁰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 ⁰	3	2.72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	1	1.000
	(3) 안전 및 환경				
	㉞ 환경보전	1	B ⁰		
	㉟ 재난 및 안전관리	4	B ⁰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E ⁺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㉞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㉞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⁰		
	㉟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 ⁰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⁰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⁰			
(2) 국민소통			1.5	1.1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1)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9	8.544
	(2)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			2	2.000
	(3)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4	3.951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3	3.000
	(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4	4.000
	(4)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6	5.017
	(2)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3	2.901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⁰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 ⁰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 기관은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간다'라는 미션과 '미래 청소년활동 가치혁신 리더, D-KYWA'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주도·참여형 활동 고도화, 국립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 미래 청소년활동 선도,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강화,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 기관이 대내외 여건 및 정부정책을 검토하여 경영전략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반영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과 비전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에 대응한 약점보완 전략이 기관 운영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기관의 미션·비전, 경영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정확히 규명하여 전략 방향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핵심가치에 기관의 특색이 부족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융합이라는 핵심가치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가치체계를 인사제도와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고, 핵심가치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여 비전 및 핵심가치 인지도와 공감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기관은 중장기 안정성이 필요한 미션과 비전을 매년 재설정하여 기관의 정체성과 핵심업무의 추진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 기관은 설립 목적과 미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전략 공감도 조사 응답률이 45.5%로 저조하다. 가치체계의 내재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응답률을 높이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략 개선방향에 따라 경영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5개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전략 방향(목표)과 전략과제를 수립하였고,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경영목표의 성과지표를 정의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경영목표 가운데 복합지표로 정의된 경우가 있어 경영목표(KPI)와 전략 방향과의 정합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영목표가 5개 전략목표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도록 성과지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략기획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

- 기관은 거시환경·사업환경 및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하여 현재의 기관 모습과 미래에 지향하는 모습을 대비하여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의 주요사업을 미래 지속성, 미래 확장성, 공공성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신규 사업이 추가로 선정된 과정은 투명하지 않아 보고서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을 고려하여 미래대응 과제를 발굴한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성과평가를 정성·정량, 간접·직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효과를 산정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관의 수입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개선 추진 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개의 추진 방향에 따라 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며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체계를 구축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상운영비 등 10억 원을 절감하고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소하며 국민소통지수가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고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과지표와 개선과제의 중점 추진 노력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가 개선과제가 의도한 목적의 수단인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인증신청 형식요건 검사업무를 디지털·자동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또한, 적극 행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연장심사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올린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온라인교육 운영체계 개선으로 비대면 교육시스템 수료자의 교육 효과를 대면 교육 수료자와 비교·검증하여 교육 운영체계의 개선점 등을 발굴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3) 리더십

- 기관장은 정책 및 환경 대응 적정성, 경영현안 시급성, 경영전략 일관성, 기관장의 의지를 고려하여 현 성과목표를 검토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보완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과제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연계성 분석 및 SMART 검증을 통해 현 성과목표와 현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증하여 유지를 결정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표 수준 재설정 여부는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도전적인 목표수준으로 재설정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율과제의 목표수준 측정과 같이 빅데이터 활용기업 수를 다운로드한 학교나 기업의 수로만 측정할 경우 실제 활용 여부와 활용의 효과를 점검하고 데이터 생산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성과측정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장은 참여, 포용, 안전, 융합의 핵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내재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대내적으로는 전 직원 온·오프 워크숍과 일자리창출 노사공동 상생추진단 발족 등을 노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아이디어 공모,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개발 및 개방 주도과 폐업위기 수련시설 긴급방역 등을 노력하여 성과를 올렸다. 다만 추진성과와 핵심가치 내재화의 노력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윤리적 가치 내재화 노력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관장은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평가 및 근로자 참여형 이사회 체계마련 등 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사회 참석률은 2019년 81%에서 2020년 92%로 향상되었고 보고안건이 13건에서 20건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다.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영 제언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리더십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C”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90.7%	90.700	3	2.721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 소관 부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721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소관 부처 평가결과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평점 84.502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1.0	100	1.000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1.8	84.502	1.52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2	100	0.200
계	3.0	90.700	2.721

라. 추세분석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2016년 65.419점, 2017년, 2018년, 2019년 연속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2020년 84.502점으로 하락하였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016년 평점 60점, 2017년 90.742점, 2018년 47.491점, 2019년 60점, 2020년 100점을 획득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확대·강화(상생추진단, 국민생각함,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등)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외부 환경분석 및 전년도 경영평가 환류 등에 기초하여 4가지 전략방향을 재수립하였다. 특히, 기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

타겟고객에 대한 고민과 타겟고객 관련 구체적 일자리 수요와 공급 분석에 기반한 민간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구성원 교육 운영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관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검사 및 치료 시설 제공과 수련시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재정 여건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한 예산확보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관 구성원의 내재화 노력(구성원의 일자리 창출 체계에 대한 이해와 공유)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시간외 근로가 상당하여 탄력근무제 도입이나 근무환경 변경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은 장시간 근로 직무 교대제 확대, 인력재배치 및 재택근무 적합직무 발굴, 온라인 출퇴근제 도입 등 재택근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건비 절감분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였고,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달성되는 업무에 배치한 실적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체험형 청년인턴의 취업 성공을 위한 관리 고도화(경로관리 등) 방안 모색을 기관에 기대한다.
- 한편, 기관은 내·외 여건 분석과 상시 진단 체계를 통하여 정원과 현원 차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정·현원 차이는 증가하였다. 확보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을 위하여 현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 객관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은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였고, 심사위원의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선하였다. 자회사 전환자에 대한 고용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용안정,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사 공동노력을 기울여 정년유예 도입, 직무급 인상 등을 통한 개선 노력이 확인되어 전환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더불어, 전환자를 포함한 고용형태별 근로조건(급여)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하는 것은 기관 구성원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와 노·노 갈등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 기관은 국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현장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업인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지원사업에 융합하여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방과후 청소년 돌봄서비스 확대사업, 청소년 참여 활성화 선도 모델 운영사업, 청소년 활동 안정성 강화 사업)을 개발·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
- 기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출성과가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관은 청소년 활동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고, 2025년까지 청소년 분야 청소년 분야 빅데이터 생산·연계·활용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성과는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그리고 전략수립 등 체계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100%	100	1	1.0

나. 평가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각 소관 부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000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각 소관 부처 평가결과 목표치의 실적을 달성하여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0.3	100	0.3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0.5	100	0.50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	0.2	100	0.200
계	1.0	100	1.000

라. 추세분석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2016년, 2017년 연속 평점 100점을 득점하고, 2018년 80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9년, 2020년 연속 100점을 달성하였다.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2017년 평점 84점, 2018년 73.333점, 2019년 60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 100점을 달성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감사·모니터링 제도 강화 및 내·외부 점검체계 개선으로 채용직무 불공정 요소 사전 진단하고 채용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고도화하여 채용 투명성을 높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모든 심사위원·응시자 대상 채용과정 투명

성·공정성·블라인드 저해요소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평가의 항목과 세부 평가결과 및 이를 반영한 기관의 개선과제 도출과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적합직무를 재설계함을 통해 기존 적합직무를 확대하여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였고, 고졸 인력의 적합직무재설계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적합직무 신설·확대는 물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체제 마련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의 고졸 인력 채용(2명)에도 불구하고 '18년(1명) 및 '19년(1명)은 고졸 채용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고졸 인력의 채용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전년 지적사항인 '경력단절여성 채용 감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우선채용 분야(육아휴직 대체자 채용)도입 및 전문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외부컨설팅을 통한 우선채용 가능직무 9종을 신규지정하고 2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자 대상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장기근속여건 조성을 위하여 입사한 날부터 육아시간을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보수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육아 휴직 시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있는바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능력 중심 채용 및 적극적 여성관리자 육성을 강화하고 승진 시 여성 인원 할당제를 운용하는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준 동종산업 여성고용률(37.8%) 대비 높은 여성고용률(41.9%)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관리자 비율은 22.2%로서 동종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고용률 수준 고려 시 장차 지속적인 여성관리자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

㉓ 환경보전

- 기관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기관의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오염·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환경의식 제고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환경보전 정의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7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보전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온실가스·쓰레기 등 환경정보 주기적 점검 및 공개 등을 통하여 실행과제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녹색제품 구매 확대, 탄소 배출 저감의 성과를 이루었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숲 조성 비대면 캠페인으로 8,577그루의 식물을 기부하여 실물 숲을 조성하는 성과를 올린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물 숲 조성사업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보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㉔ 재난 및 안전관리

- 기관은 재난 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예방-대비-대응-수습 단계의 체계를 적용하여 코로나 감염병 재난에 대응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난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환경본부를 종합대책본부로 편성·운영하고 산업안전기사와 시설안전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워크숍을 신설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재난관리체계의 단계별 실행력을 제고하기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모의훈련성과를 기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한 기관의 노력

은 인정된다.

- 기관은 청소년·국민이 이용하는 전국 청소년 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의 코칭-점검-교육의 대면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시설관리 컨설팅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고 종합안전·위생점검 일정 선택제 및 유예 신청제를 도입하고 안전사고·관련 법률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컨설팅 만족도 및 안전교육 만족도가 향상되고 안전점검 분야 행안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향상된 만족도가 유의미한지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도입하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경영체제 확립, 안전보건예방·관리 강화, 작업장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중점과제와 6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다. 안전확보의 대상을 수급업체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안전경영시스템 실태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마음·신체 건강을 위한 조치로 근무환경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KRAS 적용으로 2020년 발굴한 유해요인의 87.8%(43/49건)를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기관 관련 시설과 청사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별·계기별·조직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진단 이력관리를 도입하여 안전등급 ‘B’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노후 설비에 대응하여 시설물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육안 점검이 어려운 위험성을 고려하여 드론과 AI를 활용하여 점검함으로써 종합안전·위생점검에서 ‘최우수’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업무환경 안전성을 확보하며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버 방화벽 신규 구축,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 개인정보 청소의 날 운영, 해킹메일 훈련 등을 수행하였고 정보안전부 조직을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통합관리를 위해 시스템과 업무통합 일원화로 효율성도 제고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평가 점수는 2019년 83.4점에서 2020년 87.52점으로 향상되었고,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진단 점수는 2019년 43.09점에서 61.07점으로 향상되었다. 다만 평가점수는 향상되었으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 부문】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주무부처가 정한 방법	목표부여	100%	100%	100	3	3.0

나. 평가내용

- 중소기업생산물, 기술개발생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여성기업생산물, 장애인 생산물, 국가유공자자활용사춘생산물의 구매 실적을 각 소관 부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3,000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중소기업생산물, 기술개발생산물 등 7가지 구매 실적 모두 목표치의 실적을 달성하여 각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중소기업생산품	0.8	100	0.800
기술개발생산품	0.2	100	0.200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0.4	100	0.40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0.3	100	0.300
여성기업생산품	0.2	100	0.200
장애인생산품	0.8	100	0.800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0.3	100	0.300
계	3	100	3.000

라. 추세분석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85.420점, 2017년 81.850점, 2018년 100점, 2019년 93점, 2020년 100점을 달성하였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평점 98.064점, 2017년 100점,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100점을 획득하였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비계량 부문】

- 기관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치고 기관 핵심 역량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의 청소년활동 참여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마을 교육협의체 구성 및 찾아가는 교육하고 지역별 혁신지도자 양성, 마중물프로젝트 등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기관 고유사업인 청소년활동 및 연수 등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발굴한 지역 현안 맞춤형 과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기관은 지역사회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 지적을 반영하여 ‘민·관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경영목표에 ‘국립청소년시설 공공성 지수 60% 달성’을 신설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기관의 지역사회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 하의 체계적 협력사업 추진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기관이 제시한 연도별 계획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연도별 프로그램 개발 건수 등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이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푸른두레봉사단)을 통하여 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임시생활(검사)시설로 지원하여 비상대비정책 발전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기관이 이러한 지역의 현안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로 제시한 시민참여혁신단과 시설별 지역협의체는 기능이 다르거나 고유사업 관련 협의체 성격인바, 지역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지자체·지역관계기관 등 참여하는 협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기관은 협력·위탁업체와의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앙조달체계 활용 강화, 저가계약관행 차단노력 및 적기 자금결제를 위한 선금지급확대 및 계약관

련비용 부담 경감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기관은 '20년 여성가족부 특정감사에 따른 공정계약관련 개선을 위하여 '구매계약업무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구매·계약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는 바 향후 개선사항의 실효적 정착 및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하였다. 심리적 안정 지원, 시설 방역 지원, 콘텐츠 제작 등 사회서비스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였으며, 미평가 대상인 마을기업 등을 목표로 재설정하여 거래를 발굴하고, 정부 권장정책을 초과 달성하였다. 향후 구매중심의 지원보다 기관의 보유자산과의 연계강화 및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방안의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5) 윤리경영

-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준법·윤리경영 실행력 강화, 경영 활동 전반 투명성 제고,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준법·윤리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준법·윤리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고, 부패영향평가방식을 고도화하고 갑질 행위자의 승진제한 등 인사·복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공익·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 취약분야 제도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4등급으로 전년보다 많이 하락하였으며, 내부청렴도 수준도 부패방지제도부문과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공정성 부문 위주로 하락하여 준법·윤리경영 성과개선이 필요하다. 준법·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채용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를 제고하기 위해 채용 전체 과정 점검 및 보고절차 의무화, 채용위원과 응시자 간 상호제척제도 도입 및 전보 기준 재정립

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채용공정성과 인사만족도가 전년 대비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특정감사를 통해 국외 여행사업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의 직원이 임직원 행동강령과 겸직금지 위반이 확인되어 징직처분을 받고, 공동계약 관련자 6명은 주의 및 경고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투명한 계약업무 정착을 위해 공정한 발주체계를 확립하고, 임직원 행동강령과 겸직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동 사안은 기관이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발견한 의혹을 공정하게 처리한 결과라는 점에서 윤리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 판단된다.

- 기관은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사실을 비상임감사 소속으로 변경하고, 총 3명의 감사인원을 확보하였으며, 감사인 1인 평균 60.5시간의 감사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부패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일상감사와 부패영향평가를 강화하였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패방지제도부문과 예산집행부문 내부청렴도 점수가 저조하므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권침해 예방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만, 기관은 기관 운영 분야에 대해서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여 인권존중경영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주기적 시행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E+”로 평가한다.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기관이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 방향별 대표사업 담당조직을 기준으로 환경변화 분석과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운용 방향을 정해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력 배분계획이 조직수요와 사업수요 및 정원확보에 집중되어 수립된 바,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해 기관 인적자원의 역량차이(gap)분석에 기초한 인력 수요도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기관이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개편 전담 조직으로 기능을 이관하였고, 감사 기능과 인권경영 기능을 분리하여 별개의 조직으로 분장하였고, 해당 단위조직의 신설·이관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 및 감원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2020년에 추진된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므로,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단위조직 및 인력 관리기준 마련과 조직관리 부서의 상시기능 점진적 역할의 체계화를 위한 개선 노력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분야별 전결권을 하향 위임하여 부서장 이하 전결 비율이 91.9%에 이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기관은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교육 지원과 환경개선 참여를 통해 출자회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였고, 출자회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를 통해 출자회사의 자율경영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출자회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한 성과를 거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작 기관은 2020년에 4억 7,500만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기관 재정과 출자기관 재정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출자회사에 대해 모기관에 준하는 안전, 인권존중, 일·가정 양립, 윤리와 같은 사회적 가치 역량을 갖추도록 관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HRD비전을 정의하고, 이에 연계하여 2020년 HRD 전략방향으로 직무 전문성 고도화, 디지털 기반 강화, 교육훈련방식 다변화를 선정하고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기관에 필요한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직군별 세부직무별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비대면 직무교육 편성을 확대하여 직무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연수용 온라인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교육훈련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장기 HRD계획에 HRD 전략 방향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연간 HRD 전략 방향과 전략과제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 HRD 목표와 전략과제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간 HRD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부 주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3회 연속 재인증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교육훈련비 예산이 전년 대비 1/3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예산집행률도 70%대에 불과하여 교육훈련의 양이나 질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교육훈련예산과 집행에 대해 기관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략지표의 성과지표 반영률을 높이고, 협업지표를 확대하였으며, 성과지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4월에 이뤄지는 비계량 평가에 조기에 반영하고, 비계량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성과평가 수용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성과관리 진단 설문조사 결과 성과관리 수용도는 67.49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성과평가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저성과 부서와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향상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기준을 성과평가 편람에 명문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성과향상지원 프로그램의 충실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류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5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가운데 4개 개방형 직위를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지정하고 채용하였으며,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하여 독립기념관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두 개 공공기관과 인사교류를 하여 외

부전문가 영입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전문직위를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교육과 수당, 보임·승진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도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위제 지원자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경력개발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인사운영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특별승진제 시행 실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별승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직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두 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기관이 체감형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시차출퇴근제 및 시간선택제 요건 완화, 재택근무제 도입을 통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늘어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정규직 이직 인원 감소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교대조 운영을 확대하고, 연차사유 제거, 화상회의 원칙 수립 등을 추진하여 월평균 시간외근무와 월평균 보상휴가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연차사용 100%를 달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에 만족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제도 만족도와 일·가정 양립제도의 직원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 신설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공운법 제39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결측 처리하였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기관은 직무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방향을 외부환경, 내부여건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전략체계 연계성 강화, 직무평가 기반 마련, 그리고 인사관리체계 연계의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기관은 수립된 전략체계에 따라 직무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관 직원 대상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6개 직무분야, 18개 직무군, 116개 직무분류 체계를 확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기관은 직무기술서를 재정립하고 인사관리체계와 연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직무평가 모델을 선정 및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른 6개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직무 경험 등이 있는 평가자의 직무평가를 시행하여 직무등급을 도출하였다. 기관의 이러한 성과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직무평가 수행자 객관성 확보방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직무분류와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이의 신청 등) 체계의 운영 실적이 미미한 점의 개선을 고려한 직무분류 등에 대한 고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기관은 직무평가에 근거한 직무급 도입방안을 노사안건으로 노조에 제시하고 실무교섭을 하였으나, 상급단체 노조의 직무급 협상 반대로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기관과 노동조합은 상호 조정안 제시 등 소통 노력으로 상급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무급제 도입 노사합의를 이루었다. 이를 통하여 기본연봉 대비 직무급 비중 확대(1.1%), 역할급 차등폭 확대 등 직무 중심 보수체계로의 진전을 이루었다. 기관은 기관 여건에 적합한 직무가치가 반영된 보수 항목 비중의 확대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 연공성 완화 보수 비중을 3.4% 확대하였다. 다만, 어렵게 도입된 직무급이 직무 가치보다 직급 가치가 더욱 반영된 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직무 가치가 반영된 보수의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중

장기로드맵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㉔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기관은 2020년 자체 수입의 감소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대폭 감소하였다. 기관의 복리후생비 수준은 다른 준정부기관 대비 평균 7.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관은 복리후생 개선과제 발굴·시행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직원설문 실시를 통한 직원 니즈 파악과 타기관 복리후생 수준 및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사례 검토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지원, 건강·안전 지원 복리제도 등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예산편성 지침 등의 준수와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감사실의 개정규정 사전검토, 재무부서의 정부지침 위배 예산 편성점검, 노무부서의 노·사 교섭시 방안 안건 배제 등 협업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등 확보와 더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기관 예산 및 복리후생 담당자 간의 상호 자문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의 모색을 기관에 제언한다.
- 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 조정기간 3년(감액률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으로 설계되어 있고, 2020년 대상자는 4명이며 2020년 신규 채용 인건비 총당률은 58.9%이다.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목표인원의 인건비가 총당되도록 설계된 점은 정부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으나, 총인건비 관리를 받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노·노갈등 관리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 절감재원의 신규 채용 인건비 총당률 제고 방안의 모색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인건비 부족 시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당한다는 규정을 노사합의서 등 명시도 필요하다. 한편, 기관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제2의 인생의 설계를 위한 전직지원 근거 규정을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마련되어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재취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관리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3.8% 이내	2.758%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2020년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3.8% 이내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2020년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2.758%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3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지속적인 인건비 관리 노력을 통해 증원소요 인건비 등을 반영한 2019년 총인건비 12,080백만 원 대비 2020년 총인건비 12,414백만 원으로 2.758%의 인상률을 달성하여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6년 4.107%, 2017년 4.796%, 2018년 2.602%, 2019년 2.607%, 2020년 2.758%로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목표치 이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3) 노사관계

- 기관은 실현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성과목표 설정 및 외부전문가 활용 환류 활동 강화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과 내·외부 및 이해관계자의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 시사점을 도출하여 협력과 참여 기반의 노사관계 로드맵 및 전략체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운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하였고, 경영현안 해결, 안전 확보, 및 갈등 예방·해결 노사협의체로 운영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노사협의회를 본원과 5개 지역 사업장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 위원이 고용형태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점, 그리고 단계별 추진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개편한 점은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 제고의 노력과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고충처리 제도의 활성화와 고충처리의 공정한 해결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체계의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피해사실 신고, 상담 및 조사, 2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프로세스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한 실적이 확인된다. 또한, 고충처리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 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선제적 노사갈등 관리체계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상향식 소통과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따라 상향식 소통의 신설과 현안사안에 따른 조직소통 추진으로 소통만족도가 3.48점(87.08 → 90.56)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개선효과가 확인된다.
- 한편, 기관은 직무체계 재분류를 통하여 계층별 노사관계 필요역량을 재정립 및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를 인식하고, HRD 전략체계에 연계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는 기관의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의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기관의 노사관계 지속발전을 위해 소통채널 별(別), 노사관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별(別) 효과성 분석을 통한 고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 특히, 노·사가 기존의 임금인상방식을 변경한 정액 인상(전 직급 동일금액)에

합의하여 하위직급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협약을 마련한 것은 노사협의를 통한 기관의 근로조건 취약계층을 배려한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사례로 높이 평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 기관은 미션과 비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활동 현장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혁신목표로 설정하였고, 고유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등 3대 혁신 방향 아래 17대 추진과제와 20개 세부실행과제로서 '20년 혁신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하였다. 다만, 일부 혁신과제들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수용하거나 기관의 전사전략과제와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채 수립된 경향이 있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혁신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혁신과제들이 기관의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전사적 추진과제와 구분되는 기능전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면서 혁신에 초점을 맞춘 과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혁신성과를 분석하고 내·외부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발굴된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전 직원 설문조사 및 시민참여혁신단의 평가를 통해 ‘중요성·영향력·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혁신과제 선정 시 전년도 병목 부분, 장애 요인 및 내부혁신역량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여 혁신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각 혁신세부과제별로 담당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과제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연도별 성과목표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혁신과제들의 성과지표가 혁신의 성과 및 모니터링에 적합하지 않고 과제별 중장기 계획을 점검하기에 부족한 형식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실효적인 지표들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기관장은 혁신을 촉발하기 위하여 혁신아젠다 선포와 다각적 소통을 전개하여 혁신 참여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장의 혁신 촉발을 위한 노력에 따른 성과로 제시된 것들은 기관 전체의 혁신추진 활동과 구분되는 기관장만의 노력으로 볼 수만은 없다. 또한,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적절한 피드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혁신추진 조직을 재정립하여 과제 분야별 실행조직으로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려 하였으며, 혁신경진대회 확대(8개 부서에서 19개 부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등으로 임직원의 혁신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구성원의 혁신역량을 진단하여 자기 주도적·비정형 교육 및 내부 강사 78명 양성 등 구체적 성과를 얻었다. 다만, 구성원의 혁신역량 수준과 혁신정책 이해 및 지지에 대한 진단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마련·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환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수행한 혁신의식수준 조사결과 기관의 혁신 지속필요성(4.26점) 및 구성원 개인의 혁신추진의지(4.00점)가 높은 점수인 반면 기관의 혁신추진방향 및 전략 공감도(3.73점)와 혁신추진방향 및 전략인지도(3.77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바 혁신 지속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혁신방향 및 전략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혁신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기관은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역할의 대내외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서울지역 14개 공공기관 협업으로 혁신네트워크의 참여로 혁신성과 시너지 창출 및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소통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혁신추진의 성과에 대하여 국민과 공감을 확대하고

국민이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구체적 지점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의제의 발굴은 물론 혁신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통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규제혁신 적극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비대면 활동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인증 활동 중지제도를 신설하여 청소년 시설 규제를 혁신하는 구체적 성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목적으로 설치된 기업 성장응답센터의 경우 '20년도 접수된 사항이 없는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중점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분야 빅데이터댐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간접일자리를 창출(13명)하고 '20년 과기부의 한국판 뉴딜 데이터댐 사업에 선정된 성과가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혁신노력 및 성과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

㉠ 경영정보공시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	목표부여	별점 0점	별점 3.0점	70.000	1	0.700

나. 평가내용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기획재정부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별점을 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배분·평가하였다. 점검결과 2020년 별점은 3점으로 0.7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1차 점검결과 경과실 공시오류 1건(수의계약 현황), 2차 점검결과 경과실 공시오류 1건(출산휴가 제도 현황)으로 총 2건이 발생하여 3점의 별점을 부여 받았다.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공시 별점은 2016년 13점, 2017년 4.5점, 2018년 6.5점, 2019년 13점, 2020년 3점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㉔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	목표부여	100	고객만족도 지수 : 81.820	80.000	0.5	0.400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실적은 기획재정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0.4점 득점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고객만족도 실적은 5개 평가대상 사업 중 현장출구조사 대상인 1개 사업(청소년 수련활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측되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과거 3개년 평균점수와 준정부기관 평균점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목표점수에 미달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6년 87.0점, 2017년 90.6점, 2018년 90.4점, 2019년 90.3점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81.82점으로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20년 사업을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의 3개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은 청소년 활동의 공적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장기 사업추진전략을 설정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성과목표로 청소년활동 공적 기능 제고와 양질의 청소년활동 제공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분석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기관이 S-SMART 분석을 통해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지표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긴급 돌봄, 느린학습자, 교급전환기 청소년·가족 지원 등으로 청소년활동 사업을 다각화하여 사회배려 청소년 지원 비율이 3배 이상 증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성과 모니터링과 점검회의, 외부·내부의 성과평가 과정과 우수사항 및 보완과제 확산의 환류활동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환류활동으로 수검자의 의견을 고려한 점검일자 선택제를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인 자격연수를 대면 교육방식에서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특성과 실습부분을 감안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담보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는 대표성 있는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를 대체할 성과 측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는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지표는 현재의 산식이 현장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1)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text{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 평점} \times 0.6 + \text{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평점} \times 0.4$						
$\text{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 = \frac{\text{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건수}}{\text{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건수}}$						
$\text{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 = \text{고객만족도 조사결과(효익성 지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516 최저 : 0.310	0.541	100.000	5.400	5.400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	목표부여	100.000	결측	87.342	3.600	3.144
합계					9.000	8.544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 결측 후 실적치: 87.342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는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 사회배려대상 지원활동, 특성화·가족캠프, 청소년 단체활동)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당해연도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프로그램 운영 비율' 과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를 각각 목표부여(편차) 방식과 국민평가 방식

으로 평가하여 0.6과 0.4의 비율로 가중치 9점에 반영하였다.

- '20년도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은 총 128건이며, 이 중 인증 프로그램으로 118건을 운영하여 최고목표 0.416보다 높은 0.541의 실적으로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효익성)를 준용하나 당해연도 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코로나19 결측 기준에 따라 87.342점을 달성하였다. 두 개의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 9점 중 8.54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의 인증 운영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인증 기준에 맞춰 다시 기획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은 전년도 41.283%보다 12.845%p 높아진 54.128%를 달성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는 당해연도 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코로나19 결측 기준(과거 3개년 평균과 전년도 실적 중 최소값)에 따라 87.342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은 '20년 신규지표로, 과거 실적 분석 결과 2015년 30.205%, 2016년 35.458%, 2017년 41.991%로 지속 상승하였고 2019년 41.283%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 54.128%로 다시 대폭 상승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는 2015년부터 측정하였으며 2015년 91.208점, 2016년 87.023점, 2017년 91.479점, 2018년 84.859점, 2019년 87.342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2020년 87.342점을 획득하였다.

(2)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취약계층 활동지원인원 국립수련원 이용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193 최저 : 0.160	0.567	100.000	2.000	2.000

나. 평가내용

- 국립청소년수련원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국립청소년수련원 전체 이용인원 중 사회배려(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 지원 비율을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하여 가중치 2점에 반영하였다.
- 국립청소년수련원 이용인원 중 사회배려(취약계층) 활동 지원 비율을 산출하며, 당해연도 79,954명 중 45,344명을 지원하여 최고목표 0.193보다 3배가량 큰 0.567의 실적으로 평점 100점을 달성, 가중치 2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국립청소년수련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써 사회배려 청소년 활동지원 비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업을 강화하여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활동' 등 지역별·대상별 활동 전개 등의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 활동지원 비율은 전년도 0.177%보다 0.391%p 상승한 0.567%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비율은 2015년 16.1%, 2016년 16.6%, 2017년 15.1%, 2018년 16.6%, 2019년 17.6%로 소폭 변화하였으나 2020년 56.7%로 대폭 상승하였다.

(3)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성과목표로 청소년활동 공적 기능 제고와 양질의 청소년활동 제공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14개 성과지표 풀(Pool)을 분석하여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기관이 S-SMART 분석을 통해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며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이 선정한 국립청소년수련원 고객만족도는 기관 전반의 국민소통 정도를 나타내는 고객만족도조사(PCSI) 지표를 준용하고 있는데, 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사업별 자체 만족도 개발에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점은 보완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국민 청소년활동 확대, 청소년활동 질적 개선 지표의 '19년 실적이 사회배려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국립수련원 자체 R&D 역량 강화로, 이와 비교하여 '20년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불안·우울 확대와 대면 청소년활동 제약의 위협요인을 감안하여 총 4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8개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긴급 돌봄 지원, 느린학습자 지원, 교급전환기 청소년·가족 지원 등으로 청소년활동 사업을 다각화하여 국립수련원 사회배려 청소년 지원 비율이 3배 이상 증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 확장 및 교육공백을 지원하고 심신회복 활동부터 생활치료센터까지 개방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적역할을 강화하였다. 다만, 해양활동 학교교과시수 인정이 특정 고등학교 1개교에서만 추진된 점, 독도지킴이학교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점은 기관의 역량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대국민 사업으로 환류 확산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대면·비대면 활동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로 비대면 실시간 활동 KIT제작과 장애청소년 VR 체험교육 디지털 ME-BOOK을 제시하였다. 타기관도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계속개발하고 있으며 기관이 매년 개발하는 콘텐츠 내용과 비교하여도 우수사례로 제시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청소년활동으로 섬지역, 작은학교 학생들 2,492명이 참여한 프로그램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온라인 천체관측회를 제시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참여한 교사들의 피드백차원을 넘어 많은 참여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나트륨, 당류 등 국민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삼삼급식소로 지정받아 운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KOICA와 협업으로 3억원 재원 매칭, 농촌진흥청 등과 9천1백만 원 매칭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재원과 청소년의 눈높이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면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향상을 성과로 제시하였지만, '19년 89.2점에서 '20년 89.6점으로 0.4 증가한 것은 기관의 역량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사회배려 청소년지원 비율을 포함한 계량지표 4개의 '20년 설정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목표수준을 초과달성한 사회배려 청소년지원 비율, 사회배려 가족활동 지원 비율은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지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치 보정 외에 추가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2개의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여 '20년 목표와 목표 달성수준 및 성과를 제시하였는데, '19년 실적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20년 성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시스템적인 개선과 혁신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생산하고, 풍부한 비계량지표 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월간으로 경영실적점검 회의를 하고 주간으로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자체평가와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을 연계하여 성과지표별 달성도를 점검한 것이 확인된다. '20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1년 목표에 반영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장애요인 및 긴급 현황 대응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과제 발굴 결과는 성과발굴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②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평점 × 0.5 +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증대 성과 평점 × 0.5						
-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 $\frac{\text{실시 인증프로그램 수}}{\text{인증프로그램 수}}$						
-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증대 성과 = $\frac{\text{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수}}{\text{청소년 인구 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588 최저 : 0.348	결측	97.632	2.000	1.951
인증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058 최저 : 0.057	결측	100.000	2.000	2.000
합계					4.000	3.951

※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 및 '인증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 결측 전 실적치: 각 0.187, 0.004

나. 평가내용

-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 청소년을 늘려 인증 수련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하는 지표로서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와 '인증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0년 기준 전체 인증 프로그램 수는 2,538건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실시한 프로그램 수는 474건으로 0.187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은 '20년 청소년 인구 8,542,000명 중 34,681명이 참여하여 0.004의 실적을 달성했다.
-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의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취소·연기 지침 및 인증 프로그램 주 운영기관인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799개소의 운영 중지, 허용인원 제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집단 중심의 청소년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인증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대' 성과는 결측으로 처리한다. 코로나19 결측 기준에 따라 두 개 세부지표의 득점률은 각각 97.532점과 100점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중치 4점 중 3.95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인증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 청소년 증대를 위하여 현장 컨설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등의 노력으로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과 참여 청소년 비율을 증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청소년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인증 프로그램 운영률은 2015년 33.104%, 2016년 31.814%, 2017년 29.742%, 2018년 34.344%, 2019년 46.759%의 적정 수준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비율은 2015년 3.753%, 2016년 4.656%, 2017년 4.932%, 2018년 5.346%, 2019년 5.735%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안전교육 참여인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252 최저 : 0.215	0.436	100.000	3.000	3.000

나. 평가내용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중 안전교육 참여 인원 비율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가중치 3점에 반영하였다.
- '20년도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7,610명 중 3,315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최고목표 0.252를 상회하는 0.436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평점 100점, 가중치 3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자 분석 및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전년대비 0.184 증가한 0.436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참여율은 2015년 11.431%, 2016년 15.478%, 2017년 15.487%, 2018년 19.237%, 2019년 23.323%, 2020년 43.561%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frac{\text{안전사고 가중지수}}{\text{청소년활동 참여인원}} \times 100$	목표부여 (하향)	최고 : 0.086 최저 : 0.130	0.023	100.000	4.000	4.000

나. 평가내용

-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감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대비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중상, 경상, 부상, 경미)에 따른 가중지수를 목표부여(하향편차)로 평가하여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0년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4건(경상 2건, 경미 2건)으로,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8.0점으로 전년도 110.0점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최고목표 0.086 대비 0.023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가중치 4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청소년수련원별 특성에 맞는 안전한 환경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안전성 확보 실적은 전년대비 0.085 하락한 0.023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2015년 0.123%, 2016년 0.141%, 2017년 0.127%, 2018년 0.163%, 2019년 0.108%, 2020년 0.023%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강화 사업의 경영전략과제인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체계 고도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확산과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S-SMART 분석을 통해 선정된 안전한 청소년활동 확대 성과목표의 핵심 성과지표는 모두 신규지표인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지표개발에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계량 성과지표인 수련 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단순히 안전교육 수료인원을 기준으로 한 점, 비대면 인증수련활동 운영률 향상의 신규지표 목표가 53.5점으로 설정된 점은 다양성 및 도전성 측면에서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비계량 성과지표의 '19년 실적대비 '20년 목표설정은 근거 및 도전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경영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사업추진 전략을 세우고 SWOT 분석을 통하여 4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8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정책 저변 확대 필요와 감염병 등 위험요인 증대를 매칭하여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 실행과제를 도출한 것은 인정되나, 향후 SWOT 분석으로 과제를 설정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입국자 코로나19 임시검사시설을 지원하고 확진자 생활치료시설(2개소)을 지원하는 등 KYWA형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련시설 운영 환경을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부담으로 자체 방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수련시설의 현장의견과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긴급히 생활방역 지원을 추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비대면 안전컨설팅은 경미한 문제에 대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역량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자연권 수련시설 302개에 대한 점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지, 코

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의 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 228개소를 점검하였다. 기관이 인증활동 중지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중지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이 고객중심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20년 고객만족도 81.95점 달성을 BP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청소년활동 안전성 및 활동시설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전년대비 안전정보 제공 103.8% 향상을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로 제시하였지만, 제공하는 대상과 함께 제공하는 내용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시설관리 이력과 지자체의 협업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기관의 노력은 구축단계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 프로그램 보유율은 '19년 86.03% 대비 '20년 74.53%로 하락하여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과제 발굴의 경우 일부 성과지표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 모두 '20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수련시설 종사자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지표는 달성률 173.0%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사업의 예측과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관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우수등급 비율 97.2% 달성, 신규 인증프로그램 전년대비 5% 증가를 비계량지표의 성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청소년 마스크 3,000매, 방역키트 979개, 결식아동 도시락 및 위기가정 여성청소년 위생키트 지원 등 사회배려 청소년의 안전지원을 강화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성과 모니터링과 점검회의, 외부·내부의 성과평가 과정과 우수사항 및 보완과제 확산의 환류활동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환류활동으로 수검자의 여건을 고려한 점검일자 선택제를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전교육 참여인원은 안전 강화 사업의 효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이 지표 신설 후 반영한다는 개선실적을 제시한 것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③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 × 0.4 +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 0.6						
-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 = $\frac{\text{활동정보서비스 페이지 뷰 수}}{\text{활동정보서비스 방문자 수}}$						
-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 $\frac{\text{효과유의성 검증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수}}{\text{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7.247 최저 : 13.207	15.179	59.051	2.400	1.417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	목표대실적	100.000	100.000	100.000	3.600	3.600
합계					6.000	5.017

※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보정 전 실적치 14.140, 평점: 38.460

나. 평가내용

-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의 효과유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와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를 각각 목표부여(편차)와 목표대실적으로 평가하여 0.4와 0.6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6점에 반영하였다.
- '20년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1,272,839명의 방문자가 17,997,339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하여 14.140회의 실적으로 평점 38.460점을 달성하였으며,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는 4종의 프로젝트 모두 효과유의성이 검증되어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다.
- 다만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활동 정보를 업로드하고 청소년이 활동 참여를 위한 정보 검색으로 활용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의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취소·연기 지침 및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중지, 허용인원 제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방역지침에 따라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보정으로 처리한다. 코로나19 보정 기준(기간 제외 방식)에 따라 실적 15.179회, 평점 59.051점으로 조정하였으며, 두 개 세부지표의 가중치 6점 중 5.017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배려대상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포털 사이트 연계 등의 노력으로 1인당 조회 페이지 뷰는 전년 15.227 대비 유사한 15.179회를 달성하였다.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를 위하여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운영 모형 및 매뉴얼 개발 등의 노력한 결과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는 2015년 13.236회, 2016년 12.578회, 2017년

12.509회, 2018년 13.965회, 2019년 15.227회, 2020년 15.179회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는 2019년부터 도입된 지표로, 2019년 3개 프로젝트, 2020년 4개 프로젝트에 대해 2년 연속 효과유의성이 검증되어 100%의 실적을 보였다.

(2)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성과 평점 × 0.8 + 청소년지도자 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 × 0.2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 성과 = $\frac{\text{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text{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수}}$						
-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효익성 지수)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참여 성과	목표부여(편차)	최고 : 0.258 최저 : 0.103	0.266	100.000	2.400	2.400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	목표부여	100.000	83.425	83.425	0.600	0.501
합계					3.000	2.901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연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표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증대 성과’와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를 각각 목표부여(편차)와 국민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 0.8과 0.2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3점에 반영하였다.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7,610명 중 2,025명이 참여하였으며 최고목표 0.258보다 높은 0.266의 실적으로 평점 100점을 달성하였다. 청소년지도자연수 효익성 지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효익성) 83.425

점을 달성하였으며 두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 3점 중 2.90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문연수 수료인원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학습 모델 개발·적용 및 집합교육 최소화 등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전년 0.180 대비 0.086 증가한 0.266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의 효익성 지수는 현장 사례발표 중심의 학습 간담회 운영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방식 다변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평점 83.425 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중 전문연수 수료인원 비율은 2015년 8.307%, 2016년 8.036%, 2017년 8.115%, 2018년 11.884%, 2019년 18.049%, 2020년 26.6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효익성 지수는 2015년도부터 측정하였으며 2015년 84.080점, 2016년 83.586점, 2017년 83.238점, 2018년 82.782점, 2019년 86.466점, 2020년 83.425점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 사회적 체감성과 제고와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S-SMART 분석을 통해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전략 및 과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 Pool의 확보 모색이 필요하다는 '19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은 사업여건 및 사회적 가치 연계를 통해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사업별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기관이 성과지표 선정 수가 부족하다는 전년도 경영평

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검토 대상 지표수를 '19년 8개에서 '20년 14개로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중장기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의 기회·위협요인과 내부의 강·약점을 고려하여 4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8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비계량지표는 청소년참여활동 방식 다변화, 청소년활동 디지털전환 기반 조성으로 계량지표를 뒷받침하면서 국정목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주안점을 두는 적절한 지표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프로젝트활동(PBL) 운영기관의 핵심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여 PBL 운영기관이 4.3배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U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구적 이슈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율 아시아 2위를 달성하고 UN 고위급 회의에 대한민국 청소년 3개팀의 발언이 채택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청소년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연계하여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인 자격연수를 대면 교육방식에서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특성과 실습부분을 감안하여 자격증을 담보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빅데이터 통합관리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생산·가공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다. 예산확보의 실적에서 청소년활동 현장 활용으로 발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과제 발굴의 경우 일부 성과지표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영평가단 지적사항인 교육콘텐츠 개발 시 효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실적으로 빅데이터 기술기반 AI 상담시스템을 제시한 것은 기관의 역량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관이 청

소년지도인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수련시설종사자 전문연수 참여인원을 전년대비 35.1% 증가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계량 성과지표 중 정보서비스 활성화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20년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에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청년인턴 6명과 협력기업 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비계량지표 '청소년활동 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지표가 계량적 지표에 준해 제시되어 있어 사업의 질적·정성적 성과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계량 성과지표의 성과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와 비교하거나 MBO(목표관리제) 방식으로 당해연도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19년도 자체평가를 활용한 '20년 추진계획으로 일반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기대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신규사업 추진, 청소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융합 서비스 구축으로 현장 활용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성과지표 Pool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표 Pool을 다양화하여 전년대비 2배인 '20년 성과지표 Pool 총 14개의 개선실적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는 청소년 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와 청소년 수련활동 효익성 지수 평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점지표 구성에 있어 대표성 있는 세부지표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지수 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측정을 위한 새로운 산식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의 경우, 지표의 가중치가 2021년부터 상향되는 만큼,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이외에도 국립수련원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지표의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신뢰성 제고 성과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부여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 지표는 과거 5개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수준을 부여하였다. 2개의 세부지표 모두 목표수준은 도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성과 지표 또한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부여하여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 지표는 수련시설 인증활동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되는 지표로써 그 세부지표로 인증프로그램 활성화 성과와 인증프로그램 참여청소년 증대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세

부지표 모두 그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는 현장 안전역량 강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에도, 수련시설 종사인원 대비 안전교육 참여 비율만으로 안전 강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안전교육의 성과를 관리하는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는 현장 안전역량 강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단순 안전사고 발생건수 관리가 아닌 부상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인증수련활동 활성화 성과 지표 및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를 부여하였으며, 기관은 목표수준을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의 목표수준은 목표부여(하향) 방식으로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성과 지표는 세부지표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효과유의성 증대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현장지원을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성과 지표는 지도자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비율과 청소년지도자전문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을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그 지표 구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성과 지표의 세부지표인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의 효과유의성 검증 또한 최대목표치(100% 검증)를 설정하였으므로 도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점의 경우 청소년활동서비스 방문자 수가 감소하여도 성과 평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성과 지표의 전문연수 수료비율은 목표부여(편차)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효익성 지수 평점은 국민평가방식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두 세부지표 모두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총평

-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는 대표성 있는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수련활동 효익성 지수를 대체할 성과 측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중치 상향 예정인 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는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표의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안전교육의 성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지표는 현재의 산식이 현장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혁신성장 가점

- 기관이 수중 드론, 신재생에너지 교구재 제작, VR 기기 임차 및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적 장애청소년이 암벽 등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르래’와 ‘웨어러블 심박측정기’를 활용하여 심장박동 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1 혁신성장

①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수중 드론, 신재생에너지 교구재 제작, VR 기기 임차 및 콘텐츠를 제작하고 20년도 개발 혁신 교구재 설계 소스 및 혁신 기기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을 청소년계, 학교 등에 무상 보급하여 혁신성장 수요 창출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지체·지적 장애청소년이 암벽 등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르래’와 ‘웨어러블 심박측정기’를 활용하여 심장박동 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③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육안으로 시설물 하자를 점검할 때보다 드론과 AI를 활용할 때 하자 탐지 정확도가 높고, 탐지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혁신기술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체계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④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이 방화구획 미설치 구역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ICT 기반 혁신시제품 테스트를 신청하여 혁신시제품 테스트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의 역량에 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혁신성장 가점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4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① 코로나19 고통 분담 노력과 성과

- 기관은 임원과 보직자의 솔선수범에 기반한 내부 공감대 조성으로 성과급을 반납하고, 직원 헌혈 참여, 대구지역 등에 마스크 기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사회공헌 기금조성, 소상공인 물품구매 릴레이 등을 추진하였고 입주업체의 임대료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고통분담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특히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정에 비대면 면접 심사를 도입하고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관 업 분야의 일자리창출의 지속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 기관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별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운영방식을 긴급히 개선하여 취약 연령의 나 홀로 청소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기관과 연계한 민간시설에 긴급 소독 지원 및 방역기준을 전파하는 등의 노력과 소상공인 및 피해업체를 지원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특히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인 3월에는 신속하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임시 검사 시설 제공을 결정하여 해외 교민 1,214명의 신속하고 안정적 입국을 위한 정부 정책 대응에 이바지하였고, 3차 확산 시기에는 기관의 2개 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여 경증확진자 218명의 생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의 매우 긍정적 사례

로 평가된다.

③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디지털 뉴딜 분야의 과제 발굴에 따라 중장기 자원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 과제만을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볼 때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그린뉴딜 등 추가 추진과제 발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관은 청소년 통합 성장망(데이터댐) 확장 및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비대면 청소년 사업 확산 및 청소년활동 현장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사업방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특히 청소년 빅데이터 209종을 생산하여 공공·민간 기관이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청소년 전용공간, 문화정보 등의 혁신서비스 3종을 출시하여 국민 체감적 성과를 끌어낸 점은 기관의 역량을 잘 활용하여 기관의 특성을 부각한 사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⁰”로 평가한다.

